

## 소 교리문답 제7문

### 1. 오늘의 공부

<b>제7문</b>	하나님의 작정(영원한 결정)은 무엇인가요?
<b>답</b>	하나님의 작정(영원한 결정)들은 자기 뜻의 협의에 따라 정하신 영원한 목적인데 그것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일어날 모든 일들을 자기 영광을 위하여 예정하셨습니다.

### 2. 꼭 읽어야 할 성구

(엡1:11)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 3. 우리가 공부할 내용

- 제6문과 답을 자녀(학생)들이 잘 암송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 성경구절을 찾아서 같이 읽습니다.    ● 지난주의 내용을 간단히 복습합니다.

여러분들 학교에서 미술시간에 찰흙으로 만들기를 해본 적 있죠?

찰흙 만들기를 할 때 중요한 것은 찰흙으로 무엇을 만들 것인지를 미리 생각하여 목표를 세우는 것입니다.

토끼를 만들 것인지, 로봇을 만들 것인지, 인형을 만들 것인지, 고양이를 만들 것인지 아니면 집을 만들 것인지 목표를 세워야 그 목표에 맞게 찰흙을 반죽하고 떼고 빚을 수가 있을 거예요.

토끼를 만들려고 한다면 찰흙을 떼어서 토끼 몸통을 만들고, 다음에는 다리를 만들고, 다음에는 길쭉한 귀를 만들고 꼬리를 만들고 그렇게 만들어 진 것을 하나하나 붙여서 토끼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토끼를 만들려고 하면서 집에 붙일 창문을 만들고, 호랑이 꼬리를 만들지는 않을 거예요. 이것은 아무 목표나 계획도 없이 찰흙을 가지고 그냥 장난치는 것 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또 우리를 지으신 것에도 하나님이 미리 정해 놓으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대로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작정**’ 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조금 어려운 말이죠?

길에 다니다 보면 건물을 짓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을 겁니다. 건축을 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람이 집이나 큰 건물을 지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은 어떤 용도의 집을 지을 것인지 정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는 집을 지을 것인지 아니면 공장을 지을 것인지 용도를 정하고 그 용도에 맞게 설계라는 것을 합니다.

설계라는 말은 ‘**계획을 세운다**’ 라는 뜻인데, 미리 정한 용도에 맞게 집을 어떤 모양으로 만들 것인지 창문은 어느 방향으로 몇 개를 만들 것인지 하나하나 계획을 세우는 것을 설계라고 하는 것이고, 그 설계대로 건물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과 사람을 지으신 것도 아무 생각 없이 하신 일이 아니고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설계를 가지고 건물을 짓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우신 그 계획대로 모든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했죠? 예 ‘**하나님의 작정**’ 이라고 하는 것이예요.

여러분 ‘**우연**’ 이라는 말 아세요? ‘**뜻하지 않게 저절로 생긴 일**’ 을 ‘**우연**’ 이라고 말합니다.

가령 버스를 탔는데 생각지도 않게 친구를 만났어요. 그럴 때 ‘**우연히 친구를 만났다**’ 라고 하죠. 이처럼 계획하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았던 일이 일어나는 것을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정말 많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우연한 일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세상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작정하신 대로 되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참새 한 마리가 죽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해서 되어 진 일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세상에는 아주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것처럼 수많은 일들 가운데서 참새 한 마리가 죽는 것은 아주 작은 일이죠.

그런데 것처럼 아주 작은 일까지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저절로 일어나는 우연한 일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일어나는 일에는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쁜 일도 많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이 죽기도 하고, 홍수 때문에 집이 잠기고 죽는 사람도 있어요. 이보다 더 나쁜 일도 많이 일어나죠.

그러면 그런 일도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일까요? 맞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바로 이런 것이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왜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죽는 일이 있게 하시는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을 무엇이라고 설명하죠?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일어날 모든 일을 미리 결정하신 것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신 일이 사람을 천국에 갈 사람과 멸망을 받을 사람으로 미리 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께서 천국 보내시기로 작정하시고 믿음을 주셨기 때문인 것을 알아야 해요.

사람은 모두 다 멸망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 죄 때문이죠. 우리도 죄로 인해서 멸망을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천국 보내기로 작정하신 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멸망 받을 것을 생각하면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는 것도 이해되겠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늘을 원망하는데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천국이라는 더 큰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려운 일에서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서 어렵고 힘든 일도 겪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런 사람이 되게 하셔서 영광을 받으시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 4. 질문하고 토론해 보세요.

(선생님들은 공부한 내용을 짧게 정리해 주면서 토론으로 이끌어 가세요)

##### 1) 정리를 위한 질문

###### ① 세상에는 우연한 일이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상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작정하신 대로 되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 ②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람에게 작정하신 일은 무엇일까요?

사람을 천국에 갈 사람과 멸망을 받을 사람으로 미리 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 ③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사람은 죄 때문에 모두 다 멸망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천국 보내기로 작정하신 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께서 천국 보내시기로 작정하시고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믿게 된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멸망 받을 것을 생각하면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에요.

###### ④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늘을 원망하는데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천국이라는 더 큰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려운 일에서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서 어렵고 힘든 일도 겪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 2) 적용을 위한 토론질문

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말해 볼까요?

②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해도 감사해야 한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해야 할까요?

#### 5. 다음에 공부 할 주제 (꼭 암기해 주세요)

**제8문 :** 하나님께서 자기의 작정들을 어떻게 이루십니까?

**답 :** 하나님께서 창조와 섭리의 사역들로 자기의 작정을 이루십니다..

#### 6. 기타 과제 (계 4:11을 미리 읽어 오세요)